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 연구

윤분희

국문초록

「옥주호연」은 자주·벽주·명주 등 3인 여성영웅이 등장하는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옥주호연」에 나타난 여성 영웅성의 표출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옥주가 자신의 여성 영웅성을 발휘하게 된 계기, 즉 차별적으로 여성에게만 강요된 전통적 효의 이중성을 부정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전통적 효는 남성(아들)에게는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진출하여 입신양명함으로써 가문을 빛내는 것을 요구하고, 여성(딸)들에게는 사적(가정적) 영역에서 여성적 일(침선방적, 아들 출산, 양육, 시부모 봉양, 남편 의 내조 등)에 전념하여 가문에 공헌하는 삶을 강요함으로써 남녀 양성에게 이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런데 주인공 삼옥주는 유씨 집안의 무남독녀로서 딸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여 입신양명함으로써 가문을 빛낼 수 있으며, 여성도 능력만 있으면 사적 영역으로 제한된 여성적 삶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여성들이었다. 그리하여 삼옥주는 출가외인(현모양처)의 삶으로 고정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거부할 것을 결심한다.

둘째, 전통적 효의 이중성을 부정하기 위해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남장(男裝)을 한 채 가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삼옥주는 사적 영역에

서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복(男服)으로 변복하고 가출한다. 삼옥주의 남장은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근본적으로 제한된 시대에 여성들이 자신의 여성성을 공적 영역에서 발휘하고자 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대리인(배우자, 아들 등 남성) 내세우기, 변신하기 등과 함께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적 방편이다. 따라서 여성 영웅 삼옥주의 남장은 여성 영웅성의 허구성을 드러내거나, 성구분의 유효성이나 남성성에 대한 경도 또는 성차의 경계에 대한 문제로 보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여성 영웅 삼옥주가 살았던 시대는 공적 영역이 남녀 양성에게 평등하게 개방된 오늘의 시각에서 평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셋째,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에 삼옥주가 공적 영역에서 남성들과 같이 전포(戰袍 : 전투복)를 입고 공훈을 세우는 과정을 탐색해 보았다. 공적 영역에서 전포를 입고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고자 한 삼옥주의 목적은 단순히 무남독녀로서 공적 영역에서 입신양명함으로써 가문을 빛내는 '효'를 실행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한 국가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창건하는 등 공동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삼옥주는 그 공적으로 공적 영역의 대변자인 왕으로부터 자주는 '화수장군'으로, 벽주는 '매향장군'으로, 명주는 '옥두장군'이란 벼슬(직위)을 부여받는다. 이렇듯 삼옥주에게 부여된 작위명은 삼옥주가 남복으로 변장한 여성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남복 속에 가려진 여성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특이하다. 왕은 이러한 작위명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그들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넷째, 삼옥주가 공적 영역에서 다시 사적 영역으로 복귀하기 위해 전포(戰袍 : 전투복)를 벗고 붉은 치마(紅衣 : 女服)로 갈아입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여성 영웅 삼옥주는 '쓸데없는 여자'로서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장으로 가출하고, 남장을 한 채 공적 영역에서 '남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모든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하여 결말부에서 삼옥주는 스스로 '거울을 보고, 얼굴에 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는' 여성적 일을 환기하고 그리워한다. 삼옥주는 남자 주인공 최완 삼형제, 조정의 문무백관, 왕 등 공적 영역에 있는 모든 남성들 앞에서 남복 속에 숨겨온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고, 전포를 벗고 붉은 치마로 갈아입는다. 이 과정에서 남자 주인공 최완 삼형제는 여성 영웅 삼옥주와 남녀 양성간의 첨예한 성갈등 대신 남녀 양성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동료애를 발휘한다. 조정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은 삼옥주의 성 정체성이 여성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적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왕은 삼옥주가 최완 삼형제와 '동등(同等)한 입장'이 되도록 배려한 후 결혼을 주선한다. 그러므로 여성 영웅 삼옥주와 최완 삼형제의 결혼은 남녀 양성의 대등한 만남을 뜻한다.

결말에서 여성 영웅 삼옥주는 결혼과 함께 다시 가정으로 복귀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공적을 무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성 영웅 삼옥주가 결혼하고 복귀하는 가정은 부모, 최완 삼형제, 문무백관, 왕 등 모든 남성중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적 영역에서 여성 영웅 삼옥주

의 역할과 공적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남녀 양성이 대등하고 평등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세계이다. 따라서 결말에서 제시된 가정은 소설의 초입에서 전통적 효의 이중성으로 문 제된 가정이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

다섯째, 이러한 논의는 최종적으로 여성 영웅 삼옥주가 남장을 한 채 사적(가정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꿈꾸어 왔던 사회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있다.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에서 여성영웅 삼옥주가 남장을 하고 실현하고자 한 사회는 사적(가정적), 공적(사회적) 영역에서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는 삼옥주가 '남장(男裝)의 굴레'를 벗고, 남성과 함께 대등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이 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여성영웅 삼옥주가 꿈꾸어 온 평등한 사회는 여성영웅 삼옥주와 남성 영웅 최완 삼형제가 침예하게 대립하는 성갈등의 단계에서 벗어나, 남녀 양성이 함께 협력(協力)하고 조화(調和)를 이룰 때 비로소 실현된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은 최근의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안토니아스 라인」(여성 영화), 「아르미안의 네 딸들」(만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양귀자), 「이갈리아의 딸들」 등 '여성 영웅의 서사'에서 보여준 여성문제 해결의 비극적 인식과는 다른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옥주호연」은 21세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성문제를 극복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즉 남녀 양성의 인간화·평등화의 경지에 이르는데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머리말

「옥주호연」은 「홍계월전」, 「정수정전」 등과 함께 대표적인 여성영웅소설이다. 「홍계월전」, 「정수정전」이 1인 여성영웅이 등장하는 소설이라면, 「옥주호연」은 자주·벽주·명주 등 3인 여성영웅이 등장하는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옥주호연」은 다른 여성영웅소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알려진 작품이다. 더욱이 이 작품은 1984년 '해제(解題)¹⁾를 통해 학계에 소개된 이후 다른 여성영웅소설에 비해 연구자

1) 정병헌, 「『삼옥주』 해제, 전남대 박물관 고문서 조사보고서 『고문서』 제2책, 전남대 박물관, 1984, 151-153면.

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왔다. 첫째, 이본에 대한 연구이다. 판각본 「옥주호연」은 활자본으로 전하는 「음양삼태성」과 필사본인 「삼옥주」의 두 이본²⁾이 전하고 있다. 이들은 각 단락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보일 뿐 그 무대나 시대적 배경, 구성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문체를 기준으로 볼 때 「옥주호연」, 「삼옥주」, 「음양삼태성」의 순서³⁾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이본 연구를 통해 「옥주호연」이 다른 두 이본에 비해 비교적 선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작품 내용에 대한 연구이다. 작품 내용 분석에서는 구성과 인물, 주제 등에 대한 논평이 있었다.⁴⁾ 대체로 이들 논의는 작품의 내용 분석에 대한 짧은 논평에서 벗어나 그 작품의 서사구조에 토대를 둔 분석과 그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셋째, 고소설의 서사구조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졌다.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⁵⁾를 연구하면서 부분적으로 논의하거나, 조선조 후기 소설의 세계인식과 그 변모양상⁶⁾을 논의하면서 다른 소설과 비교한 연구가 한 두 편 있는 정도이다.

「옥주호연」에 대한 기왕의 논의는 이 작품이 다른 여성영웅소설과 구별되는 특징과 그 특징의 중요성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고소설의 서사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일부분으로 다룬 연구가

2) 정병헌, 앞의 글, 151-153면.

3) 류우선, 「삼옥주」연구, 『어문논총』 제9호, 전남대 어문학연구회, 1986, 299-304면 참조.

4) 류우선, 앞의 논문, 305-311면; 현혜경, 「옥주호연」연구, 『이화어문논집』 제7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84, 210-217면.

5) 정병헌,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와 변이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36집, 한국언어학회, 1996; 정병헌, 「여성영웅소설의 서사방식과 소설 교육적 자질」, 『한국문학논총』 제24집, 한국문화회, 1999, 6, 104-105면 참조; 이우경, 「여성성의 숨김과 드러남: 여성영웅소설의 양상」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300-302면.

6) 정병헌, 「조선조 후기소설의 세계인식과 변모양상」, 『송전 류우선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송전 류우선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7, 542-545면.

대부분이다. 더욱이 본 작품의 서사구조를 깊이 있게 분석한 개별 작품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옥주호연」에 대한 연구는 고소설의 서사구조의 일부분으로 다루기에 앞서, 본 작품 자체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와 구조분석을 통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판각본 「옥주호연」을 대상으로, 작품의 구조분석을 토대로 한 개별작품론으로 시도된다.

이 글의 목적은 「옥주호연」에 나타난 여성·영웅성의 표출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먼저, 삼옥주가 자신의 여성 영웅성을 발휘하게 된 계기, 즉 차별적으로 여성에게만 강요된 전통적 효의 이중성을 부정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전통적 효의 이중성을 부정하기 위해 사적(가정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남장(男裝)을 한 채 가출하는 과정을 추적해 보겠다. 세 번째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에 공적 영역으로 진출한 삼옥주가 남성들과 같이 전포(戰袍: 전투복)를 입고 공훈을 세우는 과정을 탐색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삼옥주가 공적 영역에서 다시 사적 영역으로 복귀하기 위해 붉은 치마(紅衣: 女服)로 갈아입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최종적으로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에서 삼옥주가 남장(男裝)을 한 채 사적(가정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꿈꾸어 왔던 사회, 즉 남녀 양성이 평등(平等)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에서 여성영웅 삼옥주가 꿈꾸어 온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 전통적孝의 이중성 부정 : 출가의인(현모양처)의 삶 거부하기

전통적인 유교중심 사회의 이념은 대체로 충, 효, 열로 상징되고 있다. 충과 열은 남녀 양성에게 명확하게 구분된 영역으로 존재하였다. 충(忠)은 공적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삶으로, 남성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열(烈)은 사적 영역과 관련이 깊은 삶으로, 대체로 여성들에게 적용되었던 덕목이다. 한편, 효(孝)는 남녀 양성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었던 이념이었다. 그런데 효 이념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에 따라 이중적(二重的)으로 적용되었다.

남성에게 요구되었던 효는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다. 더욱이 남성은 문무(文武)를 통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즉, 남성들에게는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을 하거나 전쟁터에서 싸워 공훈을 세움으로써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현모양처를 만나 부모를 잘 봉양하고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 잘 기르는 것이 효의 덕목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남성들에게 적용되었던 효는 사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가문을 빛내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효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보다 사회라는 공적 영역과 관련이 깊은 것이다.

한편, 여성에게는 공적 영역에서의 삶과 거리가 먼 사적 영역 내에서의 삶이 요구되었다. 여성들에게는 사적(가정) 영역에서 여자로서의 도리가 요구되었으며, 더욱이 그들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문의 대를 이을 수도 없었다. 여성들에게는 그 보다 다른 남성의 가문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 희생하는 일이 요구되었다. 곧, 여성은 여자로서의 예절과 품위를 가다듬어 좋은 남성을 만나고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고 내조를 통해 남편을 출세시키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 삶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여

성에게 요구되는 효는 여자로 태어나 묵묵히 가사를 배워서 남편과 시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며, 시댁의 가문을 빛내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었다.⁷⁾

이처럼 여성에게 요구된 효는 공적 영역과는 거리가 먼, 사적(가정적) 영역으로 제한되었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남성에게 종속된 삶이 강요되었다. 여성은 가정 내에서 남성의 2차적이고 부차적인 존재에 불과한 존재였다. 따라서 여성들에게는 사회보다 가정에서의 일이 우선시 되었으며, 이를 잘 수행하는 것만이 부모와 시부모에 대한 효(孝)로 제시되었다. 한편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무조건 불효(不孝)가 되었다.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은 당대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하였던 전통적 효의 이중성(二重性)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주인공 삼옥주 자매가 남성중심의 유교적 가부장제를 대변하는 ‘아버지’ 유원경과 대립적 갈등을 빚는 주요 원인은 전통적인 효의 이중성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다.

여자지도(女子之道)는 내행(內行)을 닦으며 방적(紡績)을 힘써 규문(閨門) 외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너희는 어찌 외도(外道)를 행하여 고인에게 득죄함을 감심코자 하는가? 우리 팔자 무상하여 너희 셋을 얻으매 비록 여자나 어진 배필을 얻어 우리 신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114면)

주인공 삼옥주 자매는 “재산이 유여(有餘)하되 사속(嗣續)이 없어 주야 한

7) 대부분의 내훈류는 여성의 삶을 사적(가정적) 영역으로 한정하고, 이 사적 영역에서 여성을 교육하는 한 방편으로 제작되었다. 내훈류에서 여성 교육의 내용으로 제시된 덕목 중 효의 덕목으로 제시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훈」의 경우 제1권 제2장 효친장(孝親章)에서 효의 덕목을 다루고 있다. 「계녀서」에서는 1. 부모 섬기는 도리, 3. 시부모 섬기는 도리 외에 6. 자식을 기르는 도리 등으로 효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혜왕후 한씨·송시열, 『내훈·계녀서』, 명문당, 1994.

탄하는”⁸⁾ 유원경의 세 쌍둥이 딸로 태어난다. 유원경 부부는 공적 영역에서 “가문을 빛내는 것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한다. 한편 유원경 부부는 아들 대신 세 딸 삼옥주가 ‘여자지도(女子之道)’를 잘 닦아서 비록 여자나 어진 배필을 얻어 효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자지도(女子之道)는 내행(內行)을 닦으며 방적(紡績)을 힘써 규문(閨門) 밖에 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원경 부부는 삼옥주에게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내행과 방적 등을 배울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삼옥주는 부모가 세 쌍둥이 딸에게 바라고 있는 내행(內行)과 방적(紡績 : 바느질, 길쌈 등), 즉 사적 영역에서 필요한 여성적 일을 배우는 대신 공적 영역에서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칼쓰기와 말달리기, 진(陳) 벌이기 등을 익힌다. 그들은 후원에서 아버지 몰래 조약돌로 진(陣)을 벌이고 칼쓰기, 말달리기 등을 연습한다. 대체로 칼쓰기와 말달리기, 진 벌이기 등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일로, 남성적인 일이다.

삼아 점점 자라 십 세에 미치매 절세한 용색과 선연한 품질이 비상특이하고 문견이 통민하여 시서백가에 모를 것이 없고 매양 후원에서 조약돌로 진을 벌이며 칼쓰기와 말달리기를 익히거늘.....(114면)

이렇게 남녀는 전통적으로 각각 그 성에 따라 기대하는 바가 달랐다. 전통 사회의 여성은 가정 내에서 여성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부과되었다. 그러므로 여성이 사적 영역으로 고정된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고 공적 영역에서 제한된 남성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일이기에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도전은 마땅히 징계되어야 할 행위이다. 「옥주호연」에서는 삼옥주의 부모인 유원경 부부가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8) 정병헌 · 이유경, 「옥주호연」,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113면. 앞으로는 이 책의 면수만 밝힘.

여자지도(女子之道)는 내행(內行)을 닦으며 방적(紡績)을 힘써 규문(閨門) 외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너희는 어찌 외도(外道)를 행하여 고인에게 득죄함을 감심코자 하는가? 우리 딸자 무상하여 너희 셋을 얻으매 비록 여자나 어진 배필을 얻어 우리 신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 이제 너희 조금도 규녀의 행실을 생각지 아니하니 이는 불가사문어타인(不可使聞於他人)이라. 만일 네 부친이 아시면 별반 거죄(巨罪)할 것이대 내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니 너희 소견은 어떠하뇨?(114면)

삼옥주의 어머니 왕씨는 삼옥주가 내행을 닦고 방적을 힘써서 규문에 나지 않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왕씨는 세 쌍둥이 딸 삼옥주가 규녀의 행실을 힘써 행한다면, 비록 딸이지만 어진 배필을 얻을 수 있기에 자신들의 노후를 의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왕씨의 이러한 기대는 그녀의 세 딸 삼옥주가 ‘여자지도(女子之道)’를 힘쓸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삼옥주의 어머니 왕씨가 세 딸들에게 기대하는 효는 삼옥주가 ‘여자지도’를 따를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삼옥주는 어머니 왕씨의 기대를 배반하고 ‘여자지도’ 대신 칼쓰기와 말달리기, 진 벌이기 등을 힘씀으로써 외도(外道)를 행한다. 삼옥주의 외도를 처음 발견한 어머니 왕씨는 삼옥주가 규녀(閨女)의 행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왕씨 자신이 죽어서 모르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전통성 성역할 고정관념에 고정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어머니 왕씨는 여자지도를 힘써 수행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전통적 성역할을 거부하는 것은 왕씨 자신의 ‘죽음’과 맞바꿀 수 있을만큼 중대한 일로 인식한다.

전통적 효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은 삼옥주의 아버지 유원경에게서도 확인된다. 유원경은 자신의 세 딸 삼옥주가 여성으로서 규방(閨房)의 소소한 예절을 힘쓰는 것만이 문호를 빛내는 것, 곧 효(孝)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삼옥주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예(武藝), 무술(武術) 등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남성(아들)처럼 동방급제(同榜及第)로써 문호를 빛낼 수 없는 성차별적 사회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유원경은 세 쌍둥이 딸 삼옥주가 여도(女道)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패도(敗道)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긴다. 더욱이 유원경은 자신이 엄격하게 금하는 것을 삼옥주가 듣지 않는 것은 마치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아버지 유원경의 전통적 효(孝)에 대한 이중적(二重的) 생각은 세 딸 삼옥주가 여성으로서 가정적인 일을 외면한다면 불효이며, 이러한 불효를 행한다면 ‘죽음’으로써 세 딸을 징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삼소저 또 후원에서 무예를 익힐새 유생이 다다라 보고 대경하여 궁시와 병서를 다 불사르고 왕씨를 대책 알,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본받나니 여아의 행사를 잡짚이 없음은 이 어쩐 일이뇨? 일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지간이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리라..... 생이 노질 알,

내 팔자 기구하여 한낱 아들이 없고 다만 믿는 바 너희 뿐이러니 이제 너희 이렇듯 패도(敗道)를 행하매 누가 원하리오. 오늘로부터 부녀지의를 끊어 다시 대면치 아니하리라.(114 - 115면)

시녀 향란이 웃고 알, “우리 삼소저는 타일 장성(將星)이 되려 하시매, 후원에 서 궁마지재를 익히니 불구에 대화가 미칠까 하나이다.” 생이 대경 대로 알, “내 전일에 차사를 이미 금하였거늘 어찌 아버 말을 이렇듯 경멸히 알리오. 후일에 반드시 차야로 말미암아 문호를 보전치 못하리니, 차라리 하나를 죽여 돌을 경계하리라.” 하고 취중에 노기를 견잡지 모하여 칼을 빼어 들고 후원으로 향하고자 하거늘.....(115면)

삼옥주의 아버지 유원경은 아내 왕씨가 궁시(弓矢)와 병서(兵書) 대신 ‘여

아(女兒)의 행사'를 지키도록 세 쌍둥이 딸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간이라도 용서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더욱이 그는 세 딸 삼옥주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패도(敗道)를 행한다면 끝내 문호를 보전치 못하고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로 확대해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그는 가문을 보전하기 위해 세 쌍둥이 삼옥주와 '부녀지의(父女之義)'를 끊고 다시 대면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소설 속에서 유원경의 이러한 결심은 "세 딸 중 하나를 죽여 차라리 나머지 두 딸을 경계하겠다"는 극단적 행위로 나타난다.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 유원경은 세 쌍둥이 삼옥주가 기거하는 후원으로 '칼'을 들고 들어가는 극단적 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듯 아버지 유원경과 어머니 왕씨는 전통적 효의 이중성을 신봉하고 있는 구세대의 상징적 존재이다. 그들은 여자지도(女子之道)를 폐하고 무예(武藝)를 익히고 있는 딸들을 꾸중하고, 드디어는 문중이 모인 자리에서 세 딸중 두 딸을 경계시키기 위해 하나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유원경의 이러한 생각은 삼옥주의 부모 세대 뿐만 아니라, 문중의 모든 남성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삼옥주의 부모 유원경 부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전통적 효(孝)의 이중성(二重性)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삼옥주가 전통적 효의 이중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한 여성으로 존재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3. 사적(가정적) 영역에서 탈피 : 남장(男裝)으로 가출하기

삼옥주 자매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공훈을 세우고 그 공훈으로 가문을 빛냄으로써 부모에게 효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마침내 삼옥주는 사적(가정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나갈 것을 결심하고, 남복(男服)으로 변장(變裝)하고 집을 떠난다.

삼인이 일 봉서를 닦아 동산 화정에 걸고 남복(男服)을 개착(改着)한 후 여간(旅間) 노수(路需)를 수습하여 사경에 담을 넘어 달아나니라.(116면)

그런데 소설 속에서 삼옥주의 남장(男裝)은 공적 영역에 진출한 후 남성과의 대립적인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것이 아니어서 주목된다. 다만, 그들의 남장은 여성이지만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여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효를 실천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 비록 여자이나 잠깐 부모 슬하를 떠나 무예를 배웠으면 현명군주(賢明之主)를 도와 공명을 이뤄 금의환향(錦衣還鄉)하여 부모께 영효를 보고 문호를 창개함이 어찌 충효 아니리오”(117면)

“애답은 바는 소녀 등이 남다른 여자의 몸으로 부모께 성효를 보일 것이 없사오니 주야 올민하고, 잠깐 부모를 어기어 여행을 지키지 아니하고 남자 사업”을 행한 것은 비록 딸이지만 아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 무예를 자랑하여 이름을 빛냄으로써 문호를 흥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옥주의 개인적 요구는 무예를 배운 후 공적 영역에서 공명을 이루어 금의환향하여 부모님께 영효를 보이고 문호를 창개하는 데 있다.

이 개인적 욕구를 이루기 위해 삼옥주가 찾은 출구는 남장(男裝)으로 변복(變服)하고 집을 벗어나는 방법이다. 삼옥주는 딸도 능력만 있으면 아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가문을 빛내는 효를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남장(男裝)으로 변복(變服)하고 집을 나간다.

그러나 삼옥주의 가출은 단순히 여성의 도리를 지켜 ‘부모의 생육지은(生育之恩)’을 갚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소설 속에서 삼옥주의 개인적 욕구는 삼옥주의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여성과 여성 집단 전체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녀 등이 쓸데없는 여자라. 부모의 생육지은(生育之恩)을 갚을 길이 없음을 각골통심하와 천지일월께 축원하옵고, 남자 사업을 숭상하옵더니 대인이 대로하사 부녀지간 천륜을 끊고자 하시매 소녀 등이 죄당감수(罪當甘受)할 것이로되 다시 생각건대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현양코자 하다가 도리어 부모께 골육잔해하는 누명을 취케 함이 천지간 죄인인고로 이제 마치 못하여 십 년을 위한 하옵고? 슬하를 떠나.....(116 - 117면)

삼옥주는 “삼인(三人: 벽주, 자주, 명주)이 일시에 세상에 내려(降世함)옴은 정녕코 하늘이 뜻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자로서 “녹녹히 규방(閨房)을 지키어 늙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한다. 삼옥주는 “쓸데없는 여자”로 태어났으나, “남자 사업을 숭상”하여 남성들처럼 “신명(神明)한 임금을 도와 공명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즉, 이러한 목표는 삼옥주가 비록 여자이지만 훌륭한 임금을 도와 국가를 창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에서 삼옥주가 남장(男裝)으로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째는 아들처럼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가문을 빛냄으로써 효를 실천하려는 개인적 욕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개인적 욕구에서 벗어나 비록 ‘여성(女性)’이지만 남복으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여 신명한 임금을 도와 공동체에 헌신하겠다는 집단적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다. 공적 영역에 대한 삼옥주의 욕구는 자신들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삶의 모델로 설정한 ‘장원공주’⁹⁾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상화되고 있다.

9) 장원공주에 대한 기록은 공식 역사서인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 본기, 당태종의 이야기인 「정관정요(貞觀精要)」와 열전 외에 「서유기」에서 찾을 수 없었다. 당나라의 여성으로 가장 유명한 역사적 실존 인물인 측천무후의 경우 「구당서」에서는 당당하게 본기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신당서」에서는 중종과 하나로 합쳐져 있다. 열전의 한 종목에서 2면을 차지하고 있던 여성도 삭제되고, 제제공주에서는 몇 줄의 기록으로 축소되어 있다. 「서유기」에 나온 당태종의 누이 이름

소녀 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리오마는 소녀 등이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뵈올 길이 없사온지라. 석에 당태종의 누이 장원공주도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에 횡행하여 빛난 이름이 지금 유전하오니 소녀 등도 이 일을 효칙하여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顯揚)코자 하옵고 하물며 방금 천하 대란 하오매 소녀의 즉시지추(卽時之秋)이어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이꼬(114면)

삼옥주는 여성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입신양명하여 공훈을 세우고자 하는 요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당태종 때의 여성영웅 '장원공주' 에서 찾고 있다. 장원공주는 중국의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당태종의 누이다. 그녀는 훗날 당 고조가 되는 아버지 이연이 반란을 일으키자 남편을 달아나게 한 다음, 스스로 그 지역의 병사를 모집하고 각 지역을 함락시키고 각 장수를 휘하에 거느렸던 역사적 인물이다. 그리고 일 만 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 군대에 합류한 여성이었다.¹⁰⁾ 장원공주는 비록 여성이었지만 남성들처럼 무예를 배워 천하에 빛나는 공적을 이룸으로써 여성의 이름을 공적 기록서(歷史)에 남긴 영웅이다.

이렇듯 삼옥주는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여 공훈을 세우는 것으로써 남성들이 실행하는 효를 실천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창건함으로써 공동체에 공헌하는데 삶의 목표를 두었다. 삼옥주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¹¹⁾으로 남장(男裝)을 사용한다. 여

은 장안공주가 아니라 '옥영공주(玉英公主)'이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족보에서 찾을 수 없다.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에서 삼옥주가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삶의 모델로 삼은 인물은 장안(長安)에서 살았고, 시소라는 사람에게 시집간 '평양공주(平陽公主)'인 것으로 보인다. 본래 역사는 남성(His)들의 이야기(story)였듯이 여성들에 대한 기록은 아주 적고 희귀하다는 사실을 장원공주에 대한 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 新校本 『舊唐書』 列傳 卷 五十八 列傳 第八 紫紹 平陽公主.

11) 황영미, "홍계월전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23-24면.

성들의 공적 영역에서의 진출이 제한된 시대에 삼옥주는,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 남장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삼옥주의 남장은 여성이라는 제한된 신분을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선택된 전략적 방편인 것이다.

이제 삼옥주는 변장(變裝)을 통하여 ‘여화위남(女化爲男)’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미 외적으로는 여성이 아닌 남성적 존재이다. 삼옥주는 남장(男裝)으로 변복함으로써 남성과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공적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외적 자격을 갖춘 것이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장 속에 가려진 삼옥주의 본질은 여전히 여성이다. 삼옥주는 남장으로 변장하고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출한다.

12) 여성영웅소설에서 주인공 여성의 남장(男裝)이나 변복(變服)은,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허용되지 않은 시대에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영웅적 활약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으로써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성영웅의 남장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여성의 영웅적 활약의 허구성을 드러내거나, 성구분의 유효성이나 성차의 경계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는 등 부정적이다. 이러한 논의는 공적 영역이 남녀 양성에게 평등하게 개방된 21세기 오늘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고소설 중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 삼옥주가 공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던 시대는 공적 영역이 남성들에게만 개방된 아버지 중심 사회였으므로 남성(배우자 또는 아들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거나, 남장으로 변복하거나 변신하는 등의 방법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으로나마 공적 영역이 남녀 양성에게 동등하게 개방된 우리 시대에도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전히 짧은 커트머리에 조끼를 입고 바지 정장 입기를 전략적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전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 삼옥주가 꿈꾸었던 사회는 21세기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요원하다.

4. 공적(사회적) 영역에서 입신양명 : 전포(戰袍 : 전투복) 입고 공훈 쌓기

삼옥주가 남장으로 변복한 이후 취하는 행동은 ‘영웅의 일생’이다. 공적 영역에서 삼옥주의 과업은 국가를 창건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삼옥주는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을 결심하고 스승을 찾아 떠난다. 교육은 과거(科擧)를 통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 출구였다. 그런데 교육의 기회는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만 개방되었다. 여성들은 모든 공적, 사적 교육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차별받았다.¹³⁾

삼옥주(자주, 벽주, 명주)는 남성에게만 개방된 교육의 기회 얻기 위해 공부하러 가던 중 최생 3인(완, 진, 경)을 만나 결의형제를 맺는다. 그들은 최생 삼형제와 함께 광연산에 이르러 도사(스승)를 만나 “비밀한 병서와 신기한 기예”를 배워 반 년만에 통달한다. 또한 도사의 제자 왕정빈을 만나 육도 삼략과 천문지리를 공부한다.

그리고 삼옥주는 황하산 귀곡선생 황혜 선생을 찾아가 나머지 공부를 완성한다. 여기서 삼옥주는 여성이지만 남복으로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신명한 입금’을 도와 ‘국가’를 창건함으로써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다.

선생이 잠소 알,

13) 유교 이념을 중시한 조선조 시대는 교육지상주의 시대였다. 그러나 교육은 어디까지나 양반 계층 위주의, 그리고 남성 본위의 교육이었다. 따라서 계층을 불문하고 여성 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도 제도적인 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조 시대에는 중앙에 성균관과 그 아래 5부(五部) 학당, 지방의 향교, 그 밖의 사립의 서원이나 서당 등 수많은 교육 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남성만을 위한 것이었지 여성을 위한 것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정옥, “계녀가에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교육관”, 『여성문제연구』 제18집,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90, 231-232면.

“내 들은즉 절강 호주 땅에 한 대주(大主) 있으되 절도사 조흥의 아들 조광윤이니 차인이 수명할 임금이요, 그 막하에 영웅호걸이 많으며 여등은 부디 이 사람을 찾아 섬기게 하라.(121면)

삼옥주는 황해 선생으로부터 절도사 조흥의 아들 조광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 갈 영웅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듣는다. 때마침 북한(北漢)이 변방을 침략하는 일로 공동체가 위기를 맞는다. 이에 삼옥주는 최완 삼형제와 함께 조광윤을 도와 전장으로 출전한다.

이 전쟁에서 삼옥주와 최완 삼형제는 서로 협력(協力)하여 적장 장임에게 거짓 항복하는 계교를 사용한다. 적장 장임의 부장 원견이 그들의 계교를 의심하자, 삼옥주 중 셋째인 명주가 자결하겠다는 뜻을 밝혀 적장의 믿음을 얻는다. 그후 본진으로 돌아온 삼옥주와 최생 삼형제는 서로 협력하여 적장을 속이고 항복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 여기서 자주와 벽주는 적장과 싸워 승리한다. 마침내 최완 형제 3인과 삼옥주 자매 3인이 협력하여 북군의 여러 장수를 죽이고, 장원을 무찌른 후 적군의 항복을 받는다.

자주가 칼을 들고 적진에 돌입하여 칼을 들어 우해를 내리치고, 명주는 창을 들어 유상을 찢어 죽이고 좌수로 이현을 베니, 벽주가 분연하여 한 창으로 유명을 찢어 죽이니 북군이 유명한 죽음을 보고 사산분주(四散奔走)하더라.(124면)

그리고 삼옥주는 최완 삼형제와 더불어 ‘조광윤(주공)’을 임금으로 추대한다. 삼옥주가 조광윤을 임금으로 추대한 이유는 단순히 부모에게 ‘효’를 실행하겠다는 개인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어서 주목된다. 오히려 그들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그 백성을 구할 어진 ‘임금’을 세우기 위해 ‘주공’을 추대하였기 때문이다. 주공은 후주 절도사의 아들로서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국가를 구하기 위해 세 쌍둥이 자매 삼옥주와 최완 삼형제 등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인물이다. 더욱이 조광윤은 성덕이 사

해에 빛나고 천명이 그에게 돌아온 영웅적 존재였다.

이제 후주 암약하고 백성이 도탄에 들었으매 천하 어진 임군을 기다린지 오래고 주공의 성덕이 사해에 덮여 인심이 자연 귀순하오니 이 천명이 주공께 돌아오심이어늘 이제 주공이 적은 절의(節義)를 위하여 소장 등의 말을 쓰지 아니하시매 소장 등이 바랄 것이 없사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나니 주공은 누구와 더불어 대사를 의논하시려 하나니꼬, 고언에 하였으되 천여불수(天與不受)면 반수기양(反受其殃)이라 하니 주공은 깊이 생각하여 때를 잃지 마소서.(126면)

삼옥주는 최완 삼형제와 함께 주공을 추대하여 새로운 국가를 창건한다. 그리하여 삼옥주의 영웅적 행위는 남장을 하면서까지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차원의 문제, 즉 아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 입신양명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삼옥주는 “비록 여자이나 뜻이 크온지라 남자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외도(外道)를 행하니, 이는 부모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다. 즉, “성주(聖主)를 만나 몸을 국가에 공헌하여 공업을 세움으로써 부모로 하여금 비록 아녀자나 범상한 열 아들 부러워 아니리라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삼옥주의 영웅적 행위는 가문을 빛냄으로써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에서 벗어나 도탄에 빠진 ‘국가’와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문제로 확산된다. 이는 여성의 삶을 사적 영역으로 제한시키고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부정한 것이다. 그들은 전통적 성역할을 부정하기 위한 우회적 방편으로 남장(男裝)으로 변복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자신들이 의도한 바, 즉 국가를 창건하는 일을 이룬다.

삼옥주는 주공을 도와 새로운 국가를 창건하고,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태조(조광윤)로부터 그 공적을 인정받아 벼슬을 부여받는다. 자주는 회수장군 완사후로, 벽주는 매향장군 채상후로, 명주는 옥두장군 거안후로 봉해진다.

화수장군 완사후는 “꽃이 부끄럽고 미녀의 첩첩월하에서 김을 짜는 밭”라는 뜻이고, 매향장군 채상후는 “매화 향기롭고 주유의 처 교씨¹⁴⁾ 천하 일색으로 뽕을 따 누에를 쳐 부모를 봉양하는” 뜻이다. 옥두장군 거안후는 “옥이 투기 하고 양홍의 처 맹광¹⁵⁾이 지아비 밥상을 눈위에 들던 밭”을 뜻한다.¹⁶⁾

그런데 삼옥주에게 부여된 작위명은 그들이 남장으로 변장한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남복 속에 가려진 여성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주목된다. 삼옥주의 작위명은 그들이 공적 영역에서 발휘한 여성성을 상징

14) 교씨는 제나라 민왕 때의 백성으로 부모를 대신하여 뽕을 따던 여성이었는데, 마침 민왕이 사냥나왔다가 그녀의 현명함을 높이 사 아내로 맞이한 여성이다. 그 후 교씨는 자신의 현명함을 발휘하여 왕을 보필했었던 현녀(賢女)이다. 선휘궁 영빈 이씨, 卷之二 현녀(賢女) “제숙뉴녀”, 영인판 『여범』, 대제각, 1988, 72 - 78면.

15) 맹광은 힘이 남성보다 세고 추녀에 가까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는데, 나이 30이 되어서도 자신이 직접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겠다는 뜻을 지니고 있었던 여성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청남한 삶을 신조로 삼고 있는 한난홍의 청혼을 받고, 자신의 뜻과 맞는 그를 배우자로 선택한다.

이렇게 맹광은 자신의 영웅적 기상과 주체성, 지인지각, 지혜로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남성을 만나기 위해 늦게까지 배우자 탐색에 관심을 둔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과 청렴한 뜻을 함께 할 남성을 자신이 직접 배우자로 선택한다. 선휘궁 영빈 이씨, 卷之二 현녀(賢女) “한난홍처”, 『여범』, 대제각, 1988, 79 - 81면.

16) 교씨와 맹광은 공적 영역이 여성들에게 제한된 시대에 살았던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여성의 공적 영역에의 진출이 제한되었던 시대에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배우자 선택’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대리로 표출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옥주호연」의 삼옥주는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남장을 전략적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현녀인 교씨와 맹씨는 자신의 능력을 공적 영역에서 발휘하기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 남장(男裝) 대신 남성(男性), 즉 배우자(配偶者)를 대리인(代理人)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들의 목적은 공통적이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적 방법은 남녀 양성에게 공적 영역이 평등하게 개방된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여성성의 한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교씨와 맹씨, 그리고 삼옥주가 살았던 시대는 그녀의 신분에 관계없이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완전히 폐쇄된 사회였음을 환기해야 한다.

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 여성영웅과 차이가 있다. 왕(王)은 삼옥주의 여성성을 최대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회수장군' · '매향장군' · '옥두장군' 등의 작위 이름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그들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¹⁷⁾

이 점에서 왕은 공적 영역을 대표하는 제1인자로서 공적 영역에서 삼옥주가 세운 공적과 그들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상징적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남장 속에 감추어진 삼옥주의 여성적 본질을 최대한으로 드러내는 작위를 의도적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존재이다.

5. 사적(가정적) 영역으로 복귀 : '붉은 치마(紅衣)'(현모양처)로 돌아옴

「옥주호연」에서 여성영웅 삼옥주는 목표로 설정한 과업을 성취한 후 다시 전통 사회의 여성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하고 있다. 특히 「옥주호연」은 다른 여성영웅소설과 달리 공적 영역에서 영웅적 행위를 함으로써 입신양명

17) 이는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진술을 여성 우위 설화에서 찾는 것에서 벗어나 '여성 영웅의 서사'를 무가 및 내훈류에서 찾아야 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내훈류 중에서도 「여범」이나 「여사서」 등은 여성성을 사적 영역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쓰여진 모든 내훈류가 여성성을 남성성의 비해 열등하고 주변적인 것으로 보고, 내훈류의 여성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기존의 논의에서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내훈류 「여범」이나 「여사서」 등에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성의 발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진술을 전대의 문학 내에서 찾을 때 그 영역을 여성 영웅의 무가와 여성 영웅의 설화에서 벗어나 여성 영웅의 내훈류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윤분희, 「여성 영웅성의 서사적 진술 양상 - 3. 여성 영웅의 내훈류 -」, 「2000년 박사후 과정(Post - Doc.) 국내연수 종료보고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11. 참조)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통적 여성성으로 복귀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주목된다.

소설 내에서 이 부분은 삼옥주가 남장을 한 채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여 여성영웅으로 활약하는 부분의 두 배에 가까운 분량이다. 소설의 중반 부분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여성영웅 삼옥주가 전포(戰袍 : 전투복) 대신 홍의(紅衣 : 女服)로 갈아 입은 후의 문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특이하다. 「옥주호연」의 이러한 결말처리 방식은 여성성의 실현 과정이 결국 전통적인 여성성의 확인¹⁸⁾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작품은 결말에서 여성영웅 삼옥주의 '남복(男服) 벗기기'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어서 다른 여성영웅소설들과 차이가 있다. 다른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영웅의 영웅적 활약에 초점을 둔 후, 결말의 끝 부분에서 남장을 한 영웅이 여성이었음을 간략하게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옥주호연」은 소설의 중반에서부터 결말 부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삼옥주' 스스로가 여성임을 자각하고 전포(戰袍 : 전투복) 대신 홍의(紅衣), 즉 여복(女服)으로 갈아입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삼옥주와 공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 곧 왕과 남성 동료인 최완 삼형제 등이 삼옥주의 '전포(戰袍)를 벗기고 홍의(紅衣)로 갈아 입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다른 여성영웅들과 차별화된다.

삼옥주는 남장으로 공적 영역에서 입신양명하였으나, 스스로 여성적 존재임을 자각한다. 그들은 이제까지 남복 속에 숨겨온 자신들의 여성성을 깨닫고, 그 동안 여성성을 잊고 살아왔음을 환기하고 안타까워한다.

18) 그들이 부친의 명을 거역하면서 지나온 과정의 결과가 다시 부친의 명한 바인 전통성의 확인이라면 삼옥주의 방향은 단순히 성숙한 여성이 되기 위한 입사의 의례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서사물 속에 참여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세계를 향한 '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過程)'에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전통성의 확인으로 보아서는 않된다(정병헌,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구조와 변이 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6집, 한국언어문화회, 1996, 18 - 19면 참조)는 시각은 시사하는 바 크다.

삼 년을 임금을 좇았으니 더욱 쇠함을 알고 돌아가는 꿈이 김창에 이르도다. 분면(粉面)이 족하고 능히 화경(華鏡)을 잡아 때로 사창을 의지하여 눈썹 그리기를 게을리 하는도다.(128면)

그들은 그 동안 “쓸데없는 여자”로서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장으로 공적 영역에서 임금을 좇아 활약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여 “남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게다가 딸들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 공훈을 세워 가문을 빛냄으로써 남성들만이 할 수 있는 효(孝)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삼옥주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장(男裝)으로 변장하고 집을 기출하였던 것이다.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기 때문에 삼옥주는 이제 더 이상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삼옥주는 “친을 입어 몸이 영귀(榮貴)하였으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삼옥주는 공적 영역에서 자신들이 목표로 한 과업을 이루는 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 즉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을 환기하고 여성적 삶(紅衣 : 붉은 치마)을 동경한다. 삼옥주는 남장으로 공적 영역에서 공훈을 세우기 위해 ‘분을 바를 얼굴’이 있고, ‘거울을 잡고 사창에 의지하여 눈썹 그리기’ 등 여성성을 상징하는 일을 게을리 하였음을 탄식하고 그리워한다.

삼옥주의 이러한 탄식은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고 공훈을 세우기 위해 그 동안 자신의 여성성을 남장(男裝) 속에 감추어 둘 수밖에 없었던 성차별적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현모양처(賢母良妻), 곧 출가외인(出嫁外人)의 삶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었다면 삼옥주는 ‘분을 바르고 눈썹 그리는 일’을 굳이 남장 속에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성영웅 삼옥주의 시대는 공적 영역에서 여성임을 드러내고 여성성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였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들에 의해 삼옥주가 남장으로 변장한 여성이었음이 밝

혀지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소설 속에서 삼옥주가 남장을 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황허산 황혜 선생이다. 황혜 선생은 삼옥주가 공적 영역에 진출한 후 모실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본성이 여성임을 상징하는 붉은 치마(紅衣 : 女服)를 입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자주 등의 글은 ‘수레 맨 말을 타고 고향에 돌아오는 날 전포(戰袍)로써 붉은 치마(紅衣)를 바꾸리로다’ 하였거늘.....(121면)

황혜 선생은 최완 삼형제가 ‘전포(戰袍)로써 붉은 치마(紅衣)를 바꾼다’는 뜻에 대하여 묻자, “천기 비밀하매 경설(經說)치 못하나” 타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그는 삼옥주가 여성성을 상징하는 ‘붉은 치마(紅衣)’를 입고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자유롭게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정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인적 존재이다.¹⁹⁾ 소설 속에서 그는 삼옥주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성들이 전포(戰袍 : 전투복) 속에 ‘붉은 치마’(紅衣 : 女服)를 감추어 둘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사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황혜 선생은 삼옥주가 전포(男裝) 대신 홍의(女服)를 입고 공적 영역에서 활약할 날이, 곧 올 것임을 알고 예언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최완 삼형제는 삼옥주의 전포 속에 가려진 본질이 ‘붉은 치마’, 즉 여성임을 알고 삼옥주의 여성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삼옥주와 결의 형제를 맺고 전장에서 함께 싸워 공훈을 세웠던 동료이다. 이들은 삼옥주가 공적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을 드러

19) 황혜 선생은 「박씨부인전」의 박처사와 시백의 아버지 이공과 같은 이인적 존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이인의 현실 참여 문제는 ‘여성성 표출의 관습’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정병현, “배우자 선택 이야기(擇夫譚)의 유형적 성격”, 『아세아여성연구』 제35집,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6 ; 정병현·이유경, 앞의 책, 267 - 271면 참조.

내지 못하고 감추어 둘 수밖에 없었던 삶을 한탄하는 시를 우연히 엿듣게 된다. 최완 삼형제는 삼옥주가 “그 내력과 학식이 특이하고 언어 동지(動止) 쾌활”하였기 때문에 여성임을 반신반의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삼옥주와 함께 오랜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성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특별히, 최완 삼형제는 삼옥주가 여성이었음을 알게 된 후에도 “용렬한 장부를 무수히 주어도” 삼옥주와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 점에서 남자 주인공 최완 삼형제는 다른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남성영웅들과 차이가 있다. 대체로 다른 남성영웅들은 여성영웅이 남장을 한 여성이었음을 우연히 엿보거나 엿듣게 되는 경우, 기존의 동료적인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다른 남성영웅들은 여성영웅의 남장을 벗기고 여복으로 갈아 입히는 과정에서 여성영웅을 여성 동료로 대하기 보다는 성적 대상물로서 대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완 삼형제는 공적 영역에서 함께 활약한 동료로서 남성 못지 않은 삼옥주의 영웅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소설 속에서 그들은 계교를 사용하여 삼옥주가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 최완 삼형제는 삼옥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스스로 여성임을 밝히도록 하는 속임수를 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속임수가 “일시 희롱한 것이니 형(삼옥주) 등은 노하지 말라”라는 농담을 함으로써 삼옥주가 남장을 한 여성이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여성영웅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성영웅 삼옥주와 남성영웅 최완 삼형제 사이에 남녀 양성간의 첨예한 성갈등(性葛藤)²⁰⁾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삼옥주가 여성임을 왕에게 보고함으로써, 왕

20) 여성영웅소설 「홍계월전」은 여성영웅 계월과 남성영웅 보국 사이의 남녀 양성의 첨예한 성갈등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성영웅 계월은 공적 영역에서 남자 주인공 보국보다 월등하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보국과의 첨예한 성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남성우월주의 대신 여성우월주의를 드러내고 있어서 특이하다.

이 삼옥주의 여성성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존재이다. 「옥주호연」에서 남자 주인공 최완 삼형제의 이러한 역할은, 여성의 문제는 남녀 양성 사이의 첨예한 대립으로 나타나는 성갈등의 해결 방법 보다 오히려 남녀 양성이 협력하고 조화²⁰⁾를 이룸으로써 동료애(同僚愛)를 발휘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설 속에서 삼옥주가 전포(戰袍) 속에 홍의(紅衣)를 입은 여성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존재는 황해 선생과 함께 왕(王)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왕이 외적의 침략을 물리친 공적으로 삼옥주에게 작위를 부여한 것에 드러나 있다. 그는 삼옥주가 음양변체(陰陽變體)했음을 이미 알고, 그들의 여성성(女性性)을 부각시키는 작호를 부여한다. 왕은 대체로 「내훈」이나 「여사서」, 「여범」 등의 내훈류에서 여성으로서 국가에 일정하게 기여한 역사적 실존 인물들에게 부여했던 작호를 삼옥주에게 부여²¹⁾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남성과

- 21) 여성영웅소설이 지향하고 있는 정신은 남성영웅소설과 차이가 있다. 남성영웅소설이 제1인자 정신, 최고, 지배자 정신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을 지향한다. 즉, 남녀 양성 사이의 평등과 평화, 조화와 협력, 공존 및 제2인자 정신 등을 지향하고 있어서 남성영웅소설과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은 기존의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화했던 사회, 곧 남성우월주의 대신 여성우월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들은 기존의 남성영웅소설과 다른 특징(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윤분희, “1. 여성영웅소설의 특징 - 2) 남성영웅소설과의 차이점 -”, 『2000년 박사후 과정(Post - Doc.) 국내연수 종료보고서』, 2000.11, 119면.)
- 22) 여성영웅의 내훈류 「여범」과 「여사서」에는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제한된 시대에 대리인 내세우기(우회적 방법)이나 남장(직접적 방법)으로 공적 영역에 일정하게 기여한 여성영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여성들이 「여범」의 卷之二 “현녀(賢女)”와 卷之三 “문녀(文女)”, “무녀(武女)” 항목에 드러나 있다. 이 항목에서 제시된 여성들의 이야기는 여성영웅의 서사적 진술이라는 점에서 여성영웅의 설화, 여성영웅의 신화(무가) 등과 더불어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자료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훈류 「여범」과 「여사서」는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기반을 기존의 ‘여성영웅의 설화’에서 ‘여성영웅의 신화(무가)’와 ‘여성영웅의 내훈류’로 확대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윤분희, “여성 영웅의 내훈류”, 『2000년 박사후 과정(Post - Doc.) 국내연수 종료보고서』, 2000.11, 51 - 57면 참조.)

함께 일정하게 기여한 삼옥주의 여성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그리하여 왕은 삼옥주에 대한 최완 삼형제의 보고를 받은 후 “삼녀가 비록 여자나 국가에 공덕이 호대(浩大)” 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여성임을 밝히겠다는 신념을 드러낸다. 이를 위해 왕은 거짓 계교로 옷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가야 하는 ‘고기잡이 놀이’를 삼옥주에게 시킨다. 삼옥주는 왕의 명령을 어기지 못해 스스로 여성임을 드러내게 된다.

왕은 모든 조정관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장(男裝) 속 삼옥주의 본질이 여성이었음을 공식화시킨다. 그는 공적 영역의 공식적 대변자로서 전포(戰袍) 속에 가려진 삼옥주의 본성이 여성(女性)임을 만조문무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그런 다음 왕은 삼옥주가 ‘얼굴에 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는 일’, 곧 ‘홍의(紅衣 : 女服)’ 입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한다. 그리고 왕은 삼옥주가 “규중약녀로 만군 중에 횡행하여 공훈이 호대(浩大)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화하기 위해 자주는 평국부인, 벽주는 동국부인, 명주에게는 위국부인이라는 직첩을 부여한다. 공적 영역의 대표자로서 왕은, 삼옥주가 공적 영역에서 이룬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후 최완 삼형제와 대등한 입장이 되도록 배려한 것이다. 에서 결혼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왕은 그런 연후에 삼옥주와 최완 삼형제가 대등한 입장에서 결합할 수 있는 장을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를 위해 왕은 삼옥주와 최완 삼형제를 중매하고 결혼(結婚)하도록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그러므로 여성영웅 삼옥주와 최완 삼형제의 결혼은 남녀 양성의 대등한 만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옥주호연」에서 삼옥주의 영웅성 발휘의 최종 목표는 남성 영웅 최완 삼형제와 결혼하는데 있지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결말부에서도 여성영웅들은 자신의 뜻보다는 타의에 의해 반드시 결혼하게 되는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여성영웅의 결혼은 대체로 왕이라든가 천자 등 공동체의 제1인자로서 대표성을 띤 존재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 이 여성영웅들의 결혼에는 이성간의 애뜻한 사

량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여성영웅이 영웅성을 발휘하는 최종 목표는 남성 영웅과의 미완(未完)의 결혼(結婚)에 있고, 그 결혼을 성취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혼사장애주지가 개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시각이다.²³⁾ 오히려 여성영웅의 결혼은 여성영웅소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 즉 남녀 양성의 조화와 협력, 공존과 평등²⁴⁾ 등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이러한 지향점은 여성영웅소설이 남성영웅소설과 함께 영웅소설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되는 특징으로서 의의가 크다.

이렇게 왕은 삼옥주와 같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 전포(戰袍)를 입고 활약함으로써 “쓸데없는 여자”로서 사적 영역으로 제한된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현실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23) 여성영웅소설이 드러내고 있는 여성의 문제의식을 '혼사장애'라든가 '미완의 결혼'과 연관시키는 논의는 이 부류의 소설을 혼사장애 이야기로 파악하는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창현, “고전소설의 혼사장애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국문학 연구』 81, 서울대 대학원 국문학연구회, 1987; 이인경,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IV, 중앙문화사, 1995, 1358 - 1360면.)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들의 결혼에는 남녀간의 애뜻한 사랑, 특히 이성간의 '낭만적 사랑'이 개입되어 있지 않음을 환기해야 한다. 고소설에서 여성들의 결혼은 다양한 목적으로 선택된다. (윤분희, “변강쇠전」에 나타난 여성인식”, 『판소리연구』 제9집, 판소리학회, 1998, 335 - 336면) 특히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들은, 여성의 문제는 반드시 남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남성과 성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 성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한 연후에 남성과 대등(平等)한 위치에 섰을 때 비로소 남자 주인공성과 결혼한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의 결혼은 남녀 양성이 대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성영웅들의 결혼은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에 의해 자의로 이루어지기 보다 공적 영역의 대변자로서 남성중심 세계의 상징적 존재인 왕이나 천자 등에 의해 타의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다.

24) 윤분희, “남성영웅소설과의 차이점”, 『2000년 박사후 과정(Post - Doc.) 국내연구 수종료보고서』, 2000.11, 119면 참조.

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 왕은 공적 영역의 제1인자로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정에 머물러야만 하는 사회의 성차별적 현실을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왕은 삼옥주가 남복(男服)을 입고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과제, 곧 공적 영역에서 여성도 “쓸데없는 여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삼옥주에게는 남장(男裝)으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공적 영역에서 공훈을 세움으로써 부모를 봉양하고 가문을 빛내는 일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다. 이는 방적(紡績)과 여자지도(女子之道)를 힘써 결혼한 후 출가의외인(賢母良妻)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회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삼옥주는 여성으로서 출가의외인 삶, 즉 현모양처의 삶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효(孝)의 이중성을 부정하고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 것으로써 남성과 동일한 효를 실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삼옥주는 남성과 다르게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강요된 전통적 효(孝)의 이중성(二重性)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옥주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 입신양명하여 금의환향(錦衣還鄉)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때 상이 최문경과 유원경을 패초(牌招)하사 지자기녀(其子其女) 둘을 칭찬하시고 봉작하고자 하시니 굳이 사양하니 상이 그 뜻이 굳음을 보시고, 이에 최문경을 청계 선생이라 하시고 유원경으로 운계 선생이라 하시고 각별 상사하시니.....(138면)

삼옥주는 “이업의 아들”²⁸⁾을 부러워하던 부모에게 딸들의 영화가 이업의 것만 못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유원경은 세 쌍둥이 삼옥주의 공적으로 임금에게 ‘운계 선생’이란 칭호를 받는다. 이는 최문경이 최완 아들 삼형제 때문

에 임금에게 받은 ‘칭계 선생’이란 호와 동급의 것이다. 삼옥주의 아버지 유원경은 임금에게 ‘윤계 선생’이란 칭호를 받음으로써 아들을 둔 최문경과 동등한 입장이 된다. 유원경은 아들만이 공적 영역에서 공훈을 세움으로써 실행할 수 있었던 효를 세 딸 삼옥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삼옥주는 효를 실행함에 있어서 남녀 야성간의 차이가 있지 않음을 입증한다.

결말부분에서 삼옥주는 전포(戰袍 : 男服) 대신 홍의(紅衣 : 女服)로 갈아입음으로써 여성에게 차별화된 전통적 효의 이중성을 부정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공식적으로 승인받는다. 그리하여 삼옥주는 자신들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취하고자 한 최종적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남복(男服)으로 공적 영역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남은 일은 결혼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삼옥주는 ‘다시 규중에 수졸할 뜻이 없음’을 밝힌다. 이는 삼옥주가 남장으로 집을 나간 이유가 단순히 부모에게 아들과 같은 효를 하기 위한 개인적 요구에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은 삼옥주가 여자로서 이미 공명을 이루어 남성과 같은 효를 부모에게 하였으나, 다시 가정(閨中)으로 돌아갈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드러나 있다.

첩 등이 비록 여자나 이미 공명을 이루었으며 부모께 영효(榮孝)하고 쾌히 행세하여 다시 규중에 수졸할 뜻이 없거늘 상공의 홀계로 만인 소시(所視)에 본적을 탄로하여 금일 이 거조 있으니 어이 한이 없으리오.(134면)

삼옥주는 임금의 홀계로 만인이 보는 자리에서 여성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한탄한다. 왕(王)도 삼옥주

25) “남자 팔자 희귀하여 명재(明才) 일방(一方)에 고등(高等)하여 명망이 진동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쓸데없는 삼녀를 두어 주야 근심하는고”(정병헌·이유경, 앞의 책, 115면.) 남촌 땅에 사는 이업이란 사람의 아들 형제가 동방급제(同榜及第)했다는 것을 듣고 삼옥주의 부친 유원경이 아들없음을 한탄했었던 사건이다.

가 여성임이 이미 세상에 밝혀졌기 때문에 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을 “불행히 너희 등이 여자인 고로” 곁에 둘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그러한 사회 현실 제도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왕은 삼옥주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남장 속에 자신들의 여성성을 숨겨야 하고, 공적 영역의 대변자로서 제1인자의 자리에 있는 신분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삼옥주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성차별적 사회 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사회 제도의 견고함과 심각성과 보다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평국부인 등 삼인이 채거(彩車)를 밀어 궐내에 들어가 탑전에 조현하니 상이 반기사 왈,

“너희는 국가의 제일 공신이라. 주야 상대하여도 오히려 부족함이 있을 것이로되, 불행이 너희 등이 여자인 고로 뜻과 같지 못하여 결연함이 많으며 이후로는 삭망(朔望)으로 조현하여 군신이 서로 낮이나 잊지 말게 하라.”(138면)

공적 영역의 제1인자로서 왕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삼옥주가 결혼한 후 가정으로 복귀하여도 “삭망(朔望)으로 조현(朝見)하여 군신관계(君臣關係)”를 잃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삼옥주는 공적 영역에서 입신양명한 여성영웅의 위치에서 최완 삼형제의 부인으로 돌아가 가정으로 복귀한다.

「옥주호연」의 이러한 결말은 여성영웅소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결말처리 방식이다.²⁶⁾ 결말부에서 여성영웅들은 공적 영역에서 목적을 달성

26) 여성영웅소설이 관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결말처리 방식과 그러한 결말처리 방식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영웅소설이 남성영웅소설과 다른 특징, 즉 차이점으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윤분희, “남성영웅소설과의 차이점”, 『2000년 박사후 과정(Post - Doc.) 국내연수 종료보고서』, 2000.11, 119 - 120면.)

한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다. 삼옥주는 무남독녀로서 아들과 같은 효를 실현하기 위해 남장으로 변장하고 전쟁터에서 싸웠고, 공동체의 선에 부합되는 새로운 국가를 창건한 후 다시 가정(사적 영역)으로 돌아감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공적을 무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런 결말처리 방식은 여성영웅들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부정하도록 하는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삼옥주의 영웅적 행위의 진정한 목표는 성차별적인 남성중심 공동체에 대한 치기어린 복수심에서 시작된 것에 불과하기보다, 충(忠 : 국가, 공적 영역)과 효(孝 : 가정, 사적 영역)에 대한 성차별적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목표를 달성한 후 결혼하고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삼옥주의 영웅적 행위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영웅 삼옥주가 남장(男裝)을 한 채 전쟁터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후, 결혼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들이 전쟁터에서 이룬 공적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⁷⁾

6. 여성영웅이 꿈꾸었던 사회 : 남녀 양성이 평등한 사회 꿈꾸기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에서 삼옥주는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처럼 남성들의 전유물인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남장(男裝)’

27) 이는 올림픽 양궁 여성영웅 김수녕이 올림픽이 끝난 후 결혼하고 가정으로 복귀했다고 해서 그녀가 올림픽 기간에 세운 공적이 무효화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김수녕은 그 다음 올림픽을 위해 다시 사적(가정적) 영역에서 공적(사회적) 영역으로 나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금메달을 받았다.

이처럼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 여성영웅들도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 또 다른 목표가 설정되면 그들은 다시 가정에서 사회로 나와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영웅을 그리고 있는 여성영웅 영화 「물란」, 「미녀 삼총사」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을 한 채 활동한다. 삼옥주는 아들이 아닌 딸들에게 요구되는 출가외인(出嫁外人)의 삶, 곧 현모양처(賢母良妻)의 삶이 강요되는 전통적 효의 이중성을 부정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간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국가를 구하기 위해 남장으로 변복(變服)하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고, 그 공훈으로 관직을 받는다. 이러한 삼옥주의 영웅적 행위는 그들의 남장(男裝)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동안 삼옥주의 영웅적 행위는 자신의 여성성을 남장 속에 숨긴 채 남복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부정되고, 한계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영웅 삼옥주가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이유는 여성의 역할이 사적(가정적) 영역으로 고정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공적(사회적) 영역인 전쟁터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그러므로 삼옥주의 남장은 여성들의 남성(男性)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여성(女性)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당대의 상황에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인 방편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에서 여성영웅 삼옥주가 남복(男服)으로 변장하고 실현하고자 한 사회는 사적(가정적), 공적(사회적) 영역에서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는 삼옥주가 ‘남장(男裝)의 굴레’를 벗고, 남성과 함께 대등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이 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여성영웅 삼옥주가 꿈꾸어 온 평등한 사회는 여성영웅 삼옥주와 남성 영웅 최완 삼형제가 참여하게 대립하는 성갈등(性葛藤)의 단계에서 벗어나, 남녀 양성(兩性)이 함께 협력(協力)하고 조화(調和)를 이룰 때 비로소 실현된다.

이 점에서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은 최근의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영웅의 서사’와 다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여성들만의 아마조네스 왕국을 그리고 있는 페미니즘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과 여성들만의 통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남성을 제거해 가는 만화 「아르미안의 네 딸들」, 그리고 남성우월주의 대신 여성우월주의를 그리고 있는 소설 「이갈리

아의 딸들』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양귀자) 등에서 보여준 여성문제 해결의 비극적 인식과는 다른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 「옥주호연」은 우리 시대의 페미니즘이 여성문제(女性問題)를 극복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즉 남녀 양성의 평등화·인간화의 경지에 이르는데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필자 : 관동대 강사

Abstract

Study on Heroine Novel [Ok Ju Ho Yeon]

Yoon Bun Hee

[Ok Ju Ho Yeon] is distinctive in that there appear three heroines, Ja-ju, Buk-ju, Myung-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how the heroines are represented in [Ok-ju Ho Yeon]. The summarizing conclusions are followings.

First, It is studied what made three Ok-jus show their heroic character, resisting double faces of traditional filial piety which was required only for women. For men(sons), traditional filial piety meant to glorify the family with rising in the world and winning the fame. While for women(daughters), it meant to glorify the family with serving husband and concentrating on feminine works such as sewing, giving birth to sons and bringing up them, serving parents-in-law, and helping their husbands in domestic area. But three Ok-jus had a desire to realize themselves in both areas. So they decided to resist firm traditional gender role of living as someone's wife.

Second, they chose to disguise themselves as men. It was necessary to deny the double faces of traditional filial piety and rise in the world. So they left home in male attire. Their disguise was a roundabout way and a strategy to realize their feminity in public area when it was legally impossible for women to advance to public area.

Third, It is studied how they did brilliant exploits dressed in a combat uniform. The purpose that they showed their heroic ability was not only to

accomplish their filial piety of rising in the world and glorifying the family for parents only with daughters. But also it was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ir country such as saving their country and people, and establishing a new country. Owing to their exploits, Ja-ju was received an official rank, General Hwasu, Buk-ju, General Maehang, Myung-ju, General Okdu by the king, the representative of public area. Their official ranks are important because it proves that they reveal their femininity hidden in male attire most effectively even though they are disguised.

- Fourth, It is studied on the meaning of her changing her attire from a combat uniform to red skirt. They have already accomplished one purpose of succeeding in the male world with being disguised in male attire. Then they reminded themselves that they were women. So they reflected themselves on the mirror, did makeup their faces, and painted eyebrows. They revealed their identities as women in front of all the officials like a male protagonist Choi Whan and his brothers, king's officials, and the king. Then they changed their clothes from a combat uniform to red skirt. In this process, it is remarkable that three Ok-jus, and Choi whan brothers cooperated and harmonized each other instead of causing gender conflicts of men and women. The king still admitted three Ok-jus' exploits in the meeting of king's officials even though that they are women was revealed. This means that king admitted the equal status of three Ok-jus and Choi whan brothers. Then the king became a marry-maker of them. So their marriage means an equal union of both sexes.

In the conclusion, the heroines, three Okjus came back to domestic areas. But their homes are the world that all the members of male-centered society admitted the heroines' exploits and new understanding of equal status between men and women was accomplished. Therefore the

home described in the conclusion is quite different from the home in the beginning.

Fifth, The society three Ok-jus wanted to realize is the one without discrimination of sexes both in public area and in domestic area. This society is the one that they can show their abilities in public area with their free choices. By the way, the society was realized when three Ok-jus and Choi whan brothers came to overcome the conflicts of both sexes and harmonized with helping each other. That point is important in that [Ok-ju Ho Yeon] suggested a way to ultimate destination of accomplishing equality and humanity of both sexes that we are trying to arrive by overcoming the gender problems in contemporary situation.